

사회과 지역학습 교재개발의 지역적 적합화 연구*

—경남 산청과 충남 서산의 지역학습을 사례로—

손 일** · 전종한***

Localization of Text-development on Regional Learning in Social Studies*

ILL SON** · Jong-Han Jeon***

요약 : 사회과 지역학습은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부응하고 사회과의 축소판이자 영역 통합의 실험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사회과 지역학습은 초등사회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현재 보급된 지역교과서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목차구성을 보이는 소극적 의미의 지역화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교의 지역학습이 초등사회과의 지역학습과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특히 교사-학생이 주도하는 보다 적극적 의미의 지역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지역적 적합화를 위한 이론적 과정을 검토한 후, 서로 다른 지역적 성격을 가진 두 지역을 사례로 하여 지역적 적합화 과정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각 지역의 경관과 지역관련 담론, 생태 환경 특성이 스트랜드의 지역별 비중 조절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것을 바탕으로 주제 추출의 지역적 적합화 및 내용조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주제 및 내용조직의 실례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지역학습, 적극적 지역화, 교재개발, 스트랜드, 지역적 적합화

Abstract : Regional learning in social studies has an important educational meaning in that it is a tabloid edition of social studies and it also satisfies the regionalization of national curriculum. Social studies in Korea have mainly been led by the social study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 But the local textbook which was currently used in elementary school is structured in a negative meaning of regionalization rather than positive one. It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at the regional learning of social studies in middle school should be pursued by the co-work of teachers and students. For this purpos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cesses to develop the local textbook are compared between two distinctive localities such as Sancheong and Seosan. At first, the relative ratio among the six strands is decided to develop several themes for regional learning, considering the landscape, region-related discourses and ecological environments in each region. Secondly, several themes are extracted to organize the contents of local textbook in each region. Lastly, examples of content-organization are suggested in each region. The processes above are just an example of content-organization, not a fixed one. The process, themes extracted, and the content-organization for each region may be changed according to the school location, local situation, and the quality of classroom.

Key words : Regional learning, Aggressive Regionalization, Text-development, Strand, Localization.

1. 머리말

오늘날 한국 사회과에서는 지역학습의 교과교육학적 의미를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하나는 '교육과정의 지역화'라는 시선에서 학습자가 일상 경험하는 주변지역을 제도 교육의 범주로 담아내는 영역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경험 상황을 해소해 보려는 맥락에서

사회과 영역 통합을 위한 실험장으로서의 차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지역학습은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부응하는 한편, 통합 사회과의 내부 고민을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사회과교육 연구의 핵심 영역으로서 천착될 필요가 있다.

사회과에서 지역학습에 관한 연구는 주로 초등사회과를 중심으로 진척되어 왔고 중등사회과를

* 이 논문은 2002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4-BM1035).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교수(Professor, School of Social Studies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son56@pusan.ac.kr)
***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시간강사(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philtopoer@yahoo.co.kr)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¹⁾ 연구 주제에 있어서 지역학습의 가치 및 필요성, 교과서 내용 분석, 내용구성의 논리와 준거,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어 왔고(김용만, 1986; 서재천, 1987; 김영석, 1994; 권혁풍, 1995; 황홍섭, 1995; 남상준, 1996; 박승규·심광택, 1999; 남호엽·김일기, 2001; 전중환, 2002a; 2002b; 조성욱, 2002), 보다 현실적 과제인 교재개발 전략에 관한 것은 극히 미미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기 현재, 초등사회과에서는 『사회과 탐구』 지역 교과서가 개발되어 4학년 1학기 교육과정에서 부교재로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초등사회과의 지역 교과서 활용은 내용 목차가 전국적으로 획일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의미의 지역화라 볼 수 있다. 중등사회과에서는 아직 표준 지침이나 지역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그나마 지역학습과 성격을 달리하는 '지역지리 교육' 혹은 '지역에 관한 학습'과 흔히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중등사회과의 경우에도 향토 단원을 설정하여 지역학습을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과 관련된 내용 보다는 주로 향토 조사와 관련된 일반적 절차를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지역학습에 관한 연구는 초등사회과의 그것과 연계하여 중등사회과의 지역 학습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한 과제는 교재개발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때의 교재개발은 내용의 지역적 재구성을 지향하는 적극적 의미의 지역화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등사회과의 경우 향토 단원에 할당된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 교육 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당 1시간씩의 재량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제10학년 교육과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교재개발의 대상 역시 제10학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학습 교재개발에 관한 선행 연구(손일·전중환, 2003)에 토대를 두고 '교재개발의 지역적 적합화'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한다.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선정 준거로서의 '경관'과 '지역관련 담론', 그리고 6대 스트랜드(strand) 중심의 내용조직 방안은 교재개발을 위한 표준 지침

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교실 상황과 지역적 특성을 가진 수많은 지역들에서 표준 지침이 어떻게 지역적 교재개발로 전화(轉化)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경남 산청과 충남 서산이라는 서로 다른 지역 정체성을 지닌 두 곳의 지역학습을 비교함으로써 내용구성을 위한 표준 지침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적합화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지역적 적합화의 이론적 과정

1) 스트랜드(strand)의 의미와 비중 조절 방법

스트랜드는 학문의 논리가 아닌 순수한 교육적 맥락에서 교육의 목적을 지향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스트랜드란 해당 교과의 교육 목표를 기준으로 삼아 초학문적인 시선에서 오직 목표에 도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출된 개념이나 주제를 말하는 것이다. 사회과와 같이 다양한 학문 영역들로 구성된 교과의 경우, 교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이를 준거로 내용 선정에 재단을 가함으로써 영역간 경합 상황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스트랜드의 효용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사회과의 축소판이자 사회과 통합의 실험장으로서 지역학습 교재개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교과 영역별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나 하는 것이 스트랜드 추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본 고에서 상정하는 지역학습의 목표와 스트랜드를 지리 영역 및 사회과의 그것과 비교하면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지역학습의 6대 스트랜드는 영역 목표를 '지역 정체성의 다원적 이해를 통한 지역에 함양'에 두고 구상된 것이다. 이들은 모든 지역의 지역학습 교재개발을 위한 표준(standard)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내용구성을 위한 일종의 조직 개념이 된다. 따라서 교재개발에 임하는 각 지역의 교사는 이들 여섯가지 스트랜드를 표준으로 삼아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스트랜드간 상대적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즉 어느 스트랜드를 주축으로 삼으면서 어떤 스트랜드를 그것

표 1. 교과 영역별 교육목표와 스트랜드 비교

주: 미국 지리교육위원회(NCGE, 1984)의 경우 스트랜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기본 주제(fundamental theme)라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 사회과교육협회의 스트랜드(strand) 연구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트랜드와 동일한 의미의 용어로 간주한다.

에 통합하여 다룰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스트랜드간 비중을 조정하는 방법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대변하는 경관 및 지역관련 담론을 확인한 다음, 이들과 상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몇몇 스트랜드를 중심으로 여타 스트랜드를 통합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미 있는 경관과 지역관련 담론의 소재들이 풍부하게 추출되어야 하며, 경관과 담론으로 드러나는 해당 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스트랜드간 비중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학습의 대상 지역이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도시지역인 경우 '순환'이나 '변화' 스트랜드가 가장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하고, 내용 전개에 있어서도 각각 독립된 주제로 변환될 필요가 있다.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가 지역 정체성 이해에 매우 중요한 농촌지역의 경우 '생태' 스트랜드에 대한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역사적 의미 누층이 깊은 전통취락의 경우에는 '장소' 스트랜드가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스트랜드간의 상대적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지역학습의 내용요소로서 경관과 지역관련 담론에 대한 수집 및 확인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생은 일정한 역할 분담 속에서 문헌 조사, 현지 답사, 주민 면담을 수행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관 확인 작업은 비교적 용이하나 지역관련 담론을 추출하는 작업은 다소 난해한 측면이 없지 않다. 중요한 점은 그것이 소문으로 떠돌기도 하고 각종 문헌상에 표현되기도 하며, 지역 내에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와 동시에 지역 외부에서도 생산된다는 사실이다. 지역관련 담론을 추출하는데 가장 유용한 자료는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된 자료들이다. 가령 각 대학도서관에서 무료 검색이 가능한 조선왕조실록과 민족문화대백과사전으로부터 많은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다. 학생 수준에서의 지역관련 담론은 그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나 신문과 같은 각종 대중 매체를 통해 쉽게 포착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 주도로 지역관련 담론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학습 담당 교사는 과거 및 현재를 망라하는 지역에 관한 다양한 기록들을 탐색하여 더욱 풍성한 지역관련 담론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비교·검토하게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경관 및 지역관련 담론들을 추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스트랜드 통합에 의한 주제 추출의 논리

스트랜드의 지역적 적합화 단계가 완성되면, 주제(theme)의 추출 및 각 주제에 대한 내용 구성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스트랜드와 주제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양자간의 관계는 인자분석(factor analysis)에서 변수와 인자간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다. 즉, 스트랜드는 지역 정체성 혹은 지역의 특성에 간섭하는 변수에, 그리고 주제는 인자분석을 통해 도출된 인자에 상응한다고 보는 것이다.

지역 정체성은 독도(지도 읽기)²⁾를 제외한 장소, 환경, 생태, 순환, 변화 -이상 인자분석의 변수에 상응- 를 중심으로 규정되며, 상대적으로 소수의 주제들 -인자분석의 인자에 해당-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 즉 지역 정체성은 스트랜드간 상대적 비중 및 조합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쉬워질 것이다. 인자분석의 이론적 틀에서 보면, 각각의 변수에 대한 개별 주제의 관련성 크기를 나타내는 '주제부하량[인자부하량]과 각 지역[개체]에 포함되는 개별 인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주제특점[인자특점]을 상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스트랜드와 주제간의 관계는 주제부하량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고, 주제와 지역 사이에는 주제의 지역 설명력, 즉 주제특점이 존재한다고 상정할 수 있다. 이는 스트랜드로부터 주제를 추출한다면 복잡하고 다원적인 지역 정체성을 통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여섯 가지 스트랜드 모두가 각각의 주제로 선정될 수도 있고, 스트랜드 간의 유기적 통합에 의해 여섯 개 미만의 주제가 추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독도, 장소, 환경, 생태, 순환, 변화라는 6대 스트랜드는 해당 지역의 경관 및 지역관련 담론과의 상관성에 기초하여 '항토의 위치와 지형도 읽기'(독도), '조상들이 남긴 다양한 유적들과 그 의미'(장소), '천혜의 자연환경: 광활한 충적평야와 하천'(환경), ……; '우리 고장의 변모: 어촌에서 농촌으로'(변화) 등과 같이 각각 6개 주제로 변환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스트랜드간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비중이 높은 일부 스트랜드를 중심에 두고 여타 스트랜드를 유기적으로 통합시킴으로써 6개 미만의 주제를 추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독도' 스트랜드의 경우 독립된 주제로 설정하기 보다는 나머지 다섯 개의 스트랜드에 통합시켜 다룰 수 있으며, 개별 스트랜드의 성격상 '환경'은 '생태', 그리고 '순환'은 '변화'에 각각 통합되어 새로운 주제로 변환될 개연성이 크다. 스트랜드간 통합이 잘 이루어질수록 지역에 관한 주제의 수는 몇 개로 압축되기 때문에 내용구성을 통해 그려지는 지역 정체성은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주제의 수가 적다고 해서 반드시 '지역 정체성이 명확히 혹은 정확하게 도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지역 학습에서 주제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은 오히려 지역의 특정 단면만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모둠 활동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상보적인 자료 수집, 교사-학생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토론, 반복적인 야외 답사에 토대를 두고, 경관, 지역관련 담론, 6대 스트랜드간 상대적 비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수의 적합한 주제를 추출하는 관건이 된다.

3. 교재개발의 실제에 대한 검토

-경남 산청과 충남 서산의 지역학습을 사례로-

1) 내용요소의 지역적 차별성

각 지역마다 의미있는 경관 유형은 차이가 있으며, 그 지역을 바라보는 내·외부의 시선, 즉 지역관련 담론 또한 지역마다 동일할 수 없다. 이러한 경관과 지역관련 담론은 신변지역의 이해를 위해 매우 유효한 대상이기 때문에 지역학습을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요소가 된다. 인간 삶의 터전으로써

자연환경, 즉 생태적 환경은 해당 지역의 의미있는 경관 및 지역관련 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태적 환경이 자연환경이건 인공환경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은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학습 교재개발에 임하는 각 지역의 교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는, 해당 지역의 유의미한 경관, 지역관련 담론, 그리고 독특한 생태적 환경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경관과 지역관련 담론, 생태적 환경의 지역별 특징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확인될 수 있는가? 지역의 이해에 유의미한 경관 및 생태적 환경의 특징은 야외 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답사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되 한 번에 한 개의 면(혹은 동:최소의 행정단위) 단위를 목표로 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먼저 면사무소(혹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 면을 소개하는 자료(통상 안내 지도나 지적도, 문화유적 안내서 등이 있음)를 구한 다음, 유적, 관광지, 주요한 혹은 유명한 마을 등 면에 대한 개괄적 소개를 받는다. 면사무소의 직원 중에는 거의 그 지역 출신자들이 한두 명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들을 찾아서 면담하면 효과적이다. 그 다음, 국도와 지방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주변 경관의 특징을 채록하고, 면사무소에서 수집한 내용들을 확인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다. 관(官)의 이야기와 민(民)의 시각이 다를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지역학습에서 매우 흥미로운 소재가 될 뿐만 아니라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과

정은 학생들을 나누어 모둠 활동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답사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주중에는 관공서 방문에 한정하고 현지 확인 작업은 주말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제로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경관을 보기 위해서는 볼 줄 알아야 하며 지역관련 담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답사를 많이 하여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때문에 문헌 조사와 학생들의 모둠 활동, 교사-학생간 토론이 반드시 요구된다. 특히 경관과 생태적 환경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지역관련 담론은 그렇지 않다. 지역관련 담론의 경우, 현지 주민과의 면담은 물론이고 신문자료 탐색, 각종 데이터베이스 검색, 학문적 연구물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모둠 활동은 생략하기로 하고 현지 답사와 지역에 관한 다양한 문헌 연구를 토대로 <표 2>를 작성하였다. 답사와 문헌 연구는 상보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문헌 연구는 교사가 주도해야 하고 인터넷이나 도서관 작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문헌 연구를 깊이 할수록 답사의 효과는 향상되기 마련이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탐구한 대표적 문헌들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2>를 통해 산청지방과 서산지방은 경관과 지역관련 담론, 생태적 환경에 있어서 서로 대조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관의 측면에서 볼 때 산청지방의 계단식 논, 집촌 등은 산간계류지에 적용해 온 인간 삶을 내포하는데

표 2. 경관과 지역관련 담론의 지역간 차이

표 3. 경관과 지역관련 담론 확인에 사용된 문헌 자료

주: 경관 및 지역관련 담론을 확인하는데 소용되는 자료는 시·군청, 문화원, 대학도서관 검색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위에 제시된 문헌의 유형과 자료는 어느 시·군에서나 비슷한 정도로 구할 수 있는 분량일 것이다.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는 시·군지, 택리지, 고지도, 지형도, 신문류, 조선왕조실록 CD-Rom을 들 수 있다. 문헌 유형 중에서, 경관 및 지역관련 담론의 확인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논문류이다. 논문은 학문 분야에 관계없이 그 지역의 특성을 주제로 포착하여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 정체성을 이해하게 해주는 많은 내용 요소를 담고 있다.

비해서, 서산지방에서는 해만과 구릉지에서 인간 삶의 양식이 경관상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지방 차원의 유적들과 토착집단의 유교경관이 다수 확인되는 산청지방과 달리, 서산지방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유적들과 집단노력동원의 경관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비가시적 경관인 지명을 보더라도 산청의 경우 유학자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선유동, 덕천강, 두류동 등이 흔히 확인되는 반면, 서산지방에는 고리 모양의 만입 형상을 뜻하는 환동, 운하 개착의 역사를 담은 굴포, 국가에 의한 목장 설치를 의미하는 장문 등의 지명이 자주 발견된다.

지역관련 담론의 측면에서 보면, 산청지방이 유학과 사족으로 대변되는 담론을 지니고 있다면, 서산지방의 그것은 문화적 개방성 및 서민생활과 관련된 성향을 보인다. 산청 지방에 누적되어온 중요한 공간 층위가 상류집단의 사회 및 지배집단의 문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서산 지방의 그것은 사회적 개방성, 문화적 다양성, 국가 권력에 맞서온 민

중의 삶과 관련되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지리적 연쇄성의 시각에서 보면 이 같은 차별성은 생태적 환경에서 보이는 차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내용요소에 있어서의 이 같은 차이는 스트랜드간 비중 조절의 차이, 나아가 주제 내용의 차별화로 이어지게 된다.

2) 주제의 지역적 적합화

지역학습의 주제 추출을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경관과 지역관련 담론'의 지역적 차이를 6대 스트랜드의 시선으로 투시해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독도 스트랜드는, 가령 '우리 지방의 지형도 읽기'와 같이 지역학습을 위한 기능 영역을 길러주기 위해 독자적 주제로 변환될 수도 있고, 독립된 주제로 남기보다는 여타 주제에 적절히 편입되어 지역학습 전반에 활용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학습자의 개념 발달 수준과 교실내의 질적 상황을 고려하여

교사가 융통성 있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독도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 스트랜드를 적절히 조절하여 이미 살펴본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주제를 추출해 보기로 하자.

경관과 지역관련 담론을 준거로 할 때, 과거 산청지방은 유교문화의 집적지로서 사족집단이 주도하는 지역사회였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사족집단이 선호하던 계류지변에 종족마을이 다수 입지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계단식의 경지 개간이 이루어져 왔다. 산청 지방의 사족집단들은 조선시기 이래 근현대의 사회변동 속에서도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사회적 결사를 조직하고 다양한 경관 생산을 통해서 그것을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사족집단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자연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면서 변화보다는 안정이 지속되어온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산청지방의 지역학습은 순환이나 변화 스트랜드보다는 장소, 환경 스트랜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제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서산지방의 경우 역사, 지리적으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끊임없던 지역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의 미소'라 널리 알려진 서산마애삼존불에서 고대 불교의 유입로가 이곳이었음을 알 수 있고, 안흥량과 굴포운하지로부터 조선시기 국가 교통망의 요충지였음이 드러나며, 근현대에는 신문화 요소로서 천주교와 좌익세력이 확산된 내포 지방의 주요 거점이었다. 이 지역의 지역 정체성은 산청지방의 경우와 달리 국가 수준의 정치·경제적 변동과 사회·문화적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고립성보

다는 개방성, 안정보다는 변화, 특수성보다는 다양성이 내포되어 왔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주제를 추출함에 있어서 장소 스트랜드보다는 지역적 변동과정에 의미를 두면서 순환과 변화 스트랜드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생태 스트랜드는 두 지역 모두에서 중요한 스트랜드로 다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산청과 서산지방은 각각 산간지역과 해만지역이라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생태적 환경도 다를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연환경에 적응해 온 주체에 있어서도 차별적이다. 사족집단이 환경 적응의 주요 주체였던 산청지방의 경우는 적응전략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음을 계단식 논 경관으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이에 비해 서산지방의 주된 주체는 사회 변동에 따라 때로는 천민으로 혹은 평민으로 간주되던 일반 민중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적응전략은 염전이나 밭농사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적, 소극적, 순응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개방성이 강한 지역적 특성에 힘입어 근·현대 이후 외부 세계의 사회적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새로운 지역 엘리트로 거듭나기에 이른다. 따라서, 지역학습을 위한 주제의 추출에 있어서 두 지역이 공통적으로 생태 스트랜드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두 지역에 각기 적합화된 주제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3) 지역적으로 적합화된 내용조직의 예시

(1) 산청지방의 지역학습 내용조직

표 4. 지역적으로 적합화된 주제 및 스트랜드와의 상관성

○ 주제 I. “사족집단의 응거지, 유교문화 집적지로서의 지역 정체성”

17세기 호적 자료에 의하면, 단성을 중심으로 한 산청 일대는 전체 인구구성에서 사족집단이 약 50%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이들의 노비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산청은 지리산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곳곳에 산간 계류가 있고 토지가 비옥할 뿐만 아니라 산수가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택리지에서도 산청의 옛 지명인 산음 일대의 땅이 매우 기름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자료: 단성 호적대장에 기록된 양반, 평민, 천민의 인구 비율).

이와 같이 산청지방은 사족들의 거주지로서 가장 선호되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 여러 사족들이 산청 지방으로 몰려들어 정착하기 시작했다. 가령, 단성현에 들른 관료들이 적벽과 신안강의 경치에 넋을 잃어 풍류를 즐기다 돌아가기를 잊어버렸다는 전설이 많이 남아있고, 실제 이 지역 사족들의 문집에는 역대 수령들 이외에 외부에서 온 인사들과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던 사실들 기록한 예가 많이 발견된다(사진: 계곡과 정자).

산청 내에서도 사족들이 가장 선호하며 응거했던 지역은 단성 일대였다. 단성면 일대에는 조선중기 이후 안동권씨, 합천이씨, 성주이씨, 상산김씨, 진주유씨, 밀양박씨, 남원왕씨, 성주도씨 등이 계류변에 근거지를 형성하며 분포하였다. 이들은 초기 정착지를 중심으로 인근 여러 마을로 근거지를 확산시켜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종족마을이 형성되었다. 구한말에는 경남 서부지역의 인물배출에서 ‘丹旂’이라는 말이 회자되었을 정도로 이 지방의 사족들은 진주의 사족들과 함께 경상수도 사족층을 대표하였다(사진: 주요 종족마을의 분포도 및 경관).

사족집단들은 유교세계를 이상사회로 지향하면서 선유동, 덕천, 두류동 등의 지명을 붙여가며 자신들의 근거지 일대를 소중화 세계로 만들어 갔다. 또한 덕천서원, 도천서원을 비롯해 이후 수많은 서원을 세웠는데, 18세기에는 청곡서원, 두릉서원, 완계서원, 배산서원이, 19세기에는 신계서원, 문산서원이 세워졌다. 오늘날 산청의 단성면 일원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다양한 유교경관과 유교적 이상을 담은 지명들, 종족마을 등은 사족들의 응거지로서 산청의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해 왔다(지도: 서원의 분포).

○ 주제 II. “자연환경에 적응한 토지이용 방식” -산록완사면의 계단식 논, 배산입수의 집촌-

산청지방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보이는 경관은 산록완사면에 펼쳐진 계단식 논이다. 다른 지방에서는 관개시설이 확충되면서 당초 밭이었던 경지가 논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나, 산청지방의 계단식 경지는 애초부터 논으로 개간되었으며 밭이 전환된 것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산간지대는 지형, 기후, 토양 등 여러 면에서 벼농사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청지방은 지리산지의 산록부를 중심으로 논으로 개간이 가능한 완경사면이 나타나고 수량이 풍부한 계류들이 이것을 관통하고 있어 관개에 큰 어려움이 없다.

또한 지리산지의 산록부 토양은 평지에 전주어서는 열등하지만 토심이 상당히 깊어 비교적 비옥한 편이며 이중환도 택리지에서 지리산을 토산(土山)이라 부르고 있다. 이것은 다른 산간지역과 비교할 때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벼농사를 가능케 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이 외에도 기후조건상 한해, 수해, 병충해 등 자연재해가 적다는 점, 일교차가 커서 벼의 결실이 양호하다는 점은 계단식 논을 창출해 낸 중요한 배경이었다. 경사지에서는 농경지를 개간할 경우 성패의 관건은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사면을 경작지화 할 때 토양의 유실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경사면의 계단화이다. 또한 계단화는 개간전의 자연적 삼림피복과 같은 토양보전의 효과가 있다. 특히 계단식 논은 경사지 토양유실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집중호후시에도 논 자체가 저수지 역할을 수행하여 막대한 양의 물을 가두었다가 서서히 방출함으로써 이중의 토양침식방지기능을 한다. 결국, 지리산지의 계단식 논 경관은 이 지역의 자연환경에 적응한 최선의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사진: 계단식 논 경관).

산청지방은 경상우도에서 임진왜란의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전쟁 이후 많은 새로운 유입민들이 이 지역에 들어왔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이 지방의 수려한 산수와 계류지를 찾았은 사족층들이었다. 이들이 바로 전후 복구작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당시 사족층은 이 양법, 제조법, 관개시설, 신품종의 유입 등 벼농사와 관련한 선진지식을 독점했던 사회집단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유입과 함께 산청지방의 계단식 논 경관은 크게 확대되었다. 사족들은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면서 토지를 개간하고 노비를 축적하면서 경제적 기반을 조성해 나갔고, 또한 조상이나 자손들이 묻힐 분산(墳山)도 대거 조성하고 있었다(사진: 종족마을의 입지와 경관).

이 과정에서 혈연적 응집성과 계류변의 촌락 입지, 배후의 산지와 전면의 경지가 하나의 독특한 경

관을 만들어냈는데 이 일대에서 흔히 보이는 배산임수형 집촌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산청지방의 집촌 경관은 타지역과는 다른 자연환경 조건, 여기에 적용한 계단식 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사족층들의 대거 유입, 이들의 혈연적 응집성과 촌락 입지 성향(계거), 그들이 가진 선진 농업 등과 연쇄적으로 작동하는 경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도표: 집촌경관, 계단식 논, 배산, 혈연적 응집성 사이의 지리적 연쇄성).

○ 주제 III. “사회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과 지역사회의 장기지속성”

오늘날 산청지방은 과거 수백년 전과 거의 다를 것이 없는 촌락 경관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는 산청지방이 가진 지리적 고립성과 국토개발계획에서 소외된 점이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통적으로 이 지역사회 주민의 반수 이상을 차지했던 사족집단의 성향으로부터 영향받은 바 크다. 조선후기부터 이 지방의 중심적 사회집단으로 자리잡은 사족들은 근현대 이후 이 지방의 진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들의 세계에서는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유교적 학문을 쌓고 그 덕목을 잘 실천해 가면 당시 사족들 사이에서 그 권위가 인정되었다. 이를 통해 사족집단들은 학연망을 다지고 문중결속을 강화함으로써 상류층으로서 지위를 지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족들은 수많은 서원을 세웠던 것이며 향교와 서원들이 같이 연대해서 고을내의 사족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그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구한말에 가면 전국적으로 서원이 철폐되면서 산청지방의 서원도 모두 철폐된다. 이 지역의 사족들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도 하였지만, 이에 대항해 변칙을 동원하여 다시 서원을 복구하기 시작하였다. 각 서원들은 가문의 인사와 사족들의 협력으로 하나씩 정사나 영당 형태로 복구되었던 것이다. 도천서원은 노산정사로, 신안서원은 신안정사로 부활하였다. 또한 사족집단은 자신들만의 규약을 세우고 봄에는 산청 회계의 이락재에서, 가을에는 삼가의 뇌룡정에서, 겨울에는 산청 단성의 신안정사에서 강회를 여는 등 내적 결속력을 더욱 다져갔다(사진: 서원에서의 행사).

이 외에도 산청지방의 사족들은 근현대 이후의 사회변동에 대응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족보의 편찬, 문집의 간행, 서원의 창립이 그것인데 이러한 사업을 위해 인근 지역의 사족들과 연대해서 서로 지원하고 지원받으려 하였다. 일제시대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향교 규약을 ‘향안실’이라는 별도 건물을 지어서 보관했을 정도였다. 이런 면에서 산청지방에 나타나는 많은 서원들을 독립적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향교와 서원은 사족들을 매개로 서로 연대해서 집단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산청지방의 사족들은 진주를 비롯한 인근 고을보다도 안정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사진: 족보와 문집, 발간 주체에 대한 소개).

오늘날 산청지방에는 20개의 유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중 유교문화재가 압도적으로 많아 13건, 불교 문화재가 6건, 기타 1건이다. 유교문화재는 단성향교, 덕천서원, 단성호적장적, 덕계선생 문집책판, 남명선생 문집책판, 여택당소장 문집책판, 단계선생 일기, 단계선생 문집책판, 산청향교, 동계선생 문집책판, 도천서원 신안사상재, 일신당 문집책판 등으로서 대부분 사족집단들의 지위 유지와 관련된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과정들은 서원이나 정자와 같은 경관 생산과 호혜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산청지방의 사회적 장기지속성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성격이 이 지방의 보수성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낙후성으로 비쳐지기도 하며 때로는 강한 지조로, 혹은 양반의 고장이라는 지역관련 담론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지도: 서원분포의 집중성과 상호 네트워크).

(2) 서산지방의 지역학습 내용조직

○ 주제 I. “개방성, 진취성, 저항성으로 대변되는 지역 정체성”

경관과 지역관련 담론들에 근거할 때 서산 지역은 개방성, 진취성, 저항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지도 제시: 서산의 지형과 해안선). 안홍량, 굴포 운하터, 광범위한 포구 취락 경관에서 볼 수 있는 바닷길을 이용한 개방성, 서산 마애삼존불이나 천주교 공소의 분포에서 알 수 있는 문화 수용의 진취성, 가옥이 흩어져 분포하는 산촌 경관 및 동학농민전쟁 유적에서 추정할 수 있는 저항성이 그것이다(사진 제시: 안홍량, 굴포 운하, 구도나루, 명천포구, 서산 마애삼존불).

이 지역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 가톨릭의 3대 요람 중 하나로 불리우는 한편, 신교육 보급에의 적극성으로 신 지식층까지 형성될 정도로 이문화(異文化) 수용에 개방적이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어느 한 세력이 압도적인 지배 권력을 갖지 못한 속에서 다양한 사회세력이 존재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향·소·부곡 등이 설치되어 천민 또는 천민에 가까운 평민들이 다수 거주했던 곳이었으며, 조선시에는 양반과 유학자도 있었지만 평민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역사적으로 강한 생활력을 가진 천민과 평민들은 이 지역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염업과 해운이라는 전략으로 생태적 자연 환경에 적응해 왔다. 나아가, 이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했던 조선후기와 일제시기를 거치는 동안 생업에 의한 이윤으로 부를 창출하여 사회적 주도 세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19세기 말 동학과 활빈당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었으며, 근대사를 수놓았던 많은 선구적인 근대 지식인과 민족운동가,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배출되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역의 정체성은 개방적·저항적·진취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지역 특성은 충청지역 내륙 지방과도 차별되는 독특한 특성으로서 이 지역 정체성의 중심을 이룬다.

○ 주제 II. “자연환경에 적응한 삶의 방식” -해안가의 염전 경관, 육지의 산촌 경관-

서산 지역을 대변하는 자연 환경은 수많은 해만(海灣)과 구릉성 산지이다. 이 두 가지 환경 조건은 이 지역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투쟁과 삶의 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생태적 환경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해만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염전을 개발해 왔으며, 구릉성 산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산촌(散村) 경관을 창출하였다(사진 제시: 자염업 유적, 천일제염 염전, 산촌 경관).

이 지역에 분포하는 중·소규모의 수많은 해만들은 일찍부터 인간에 의한 대규모 개척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구하천의 발달이 미약하여 담수 공급이 충분치 못한 자연지리적 조건과 목장 및 군사 방어선을 내세운 중앙 정부의 공간 통제 정책으로 인해 해만이라는 공간은 경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해만에서는 경지개간 대신 소금 생산을 위한 경관이 등장하였고 해로와 수로를 활용한 해운이 지역적 환경에 적합한 적응 전략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만이라는 개방적 지리조건은 천주교를 비롯한 다양한 신문화를 접목하고 확산시키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생태적 환경으로서 해만이라는 지리적 특색과 그에 대한 적응전략은 조선 및 일제시기를 거치는 동안 이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서산 지역의 지형은 산이라 할 수도 없고 평야라 볼 수도 없는 비산비야(非山非野)의 지형이 널리 전개된다(사진 제시: 구릉성 산지). 이러한 지형은 화강암 풍화토로서 수직적 배수력이 강하며 하천 발달이 미약하고 토양이 척박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충적지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토지, 경지로서의 매력은 별로 없고, 개간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논농사 대신 밭농사가 주를 이루게 된다. 그만큼 이 지역은 근세까지도 인간의 거주에 불리한 지형 환경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에 인간이 거주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한 연원 중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전란(戰亂), 조선후기의 사회적 불안과 지속적 흉년 등의 요인이 있었다. 이들 요인에 의해 이 지역에 유입한 사람들은 사회적, 정치적 피난민의 처지였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유입 단위는 매우 독립적, 개별적일 수 밖에 없다. 유입과정상의 이 같은 개별성으로 인해 이 지역의 인간 거주는 자연스럽게 산거(散居) 패턴, 즉 산촌(散村)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하천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주된 토지 이용은 밭농사 위주로 나타나게 되었다. 전술한 해안에서의 염전 개발이 자연환경에 대한 적극적 적응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육지에서의 산촌 패턴은 사회적 독립성과 문화적 이질성의 공존을 대변한다.

○ 주제 III. “삶의 양식의 변천과 지역의 변모” -소금 노동자에서 대지주로, 촌락에서 도시로의 재편-

서산지방에서 수많은 해만의 분포와 구릉성 지형이라는 자연지리적 조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생태적 적응전략은, 촌락 경관으로서는 산촌을,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염전을, 그리고 상업 활동에 있어서는 해운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창출하는 식으로 표출되었다(지도 제시: 토지이용도). 또한 서해로 돌출한 해만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양민의 경제활동이 양반에 비해 우세했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천주교 및 신교육 등의 수용에 있어서 이 지역 특유의 개방성·진취성을 드러낸다.

서산지역은 전통적으로 유력한 권문세족이 혼치 않았는데, 이는 해안과 구릉으로 대표되는 이 지역의 생태적 환경이 농경지 개간에 불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일반 양민이 다수

를 차지했고 국가 수준의 정치·사회적 변화는 권세가를 거치지 않고 이들의 삶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사회적 환경은 생활력이 강한 일반 양민이 농·상·어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는 오히려 득이 되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이 일대가 소금 생산에 적절한 생태적 환경이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외지인에 앞서서 이 지역에서 천일제염의 입지와 확산을 주도할 수 있었다. 염전 사업을 토대로 부를 창출한 소금 노동자들은 일제시기를 지나면서 대토지 소유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다져갔다. 그리고 이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점차 이 지역의 정치적 권력집단으로 등장한다는 점이 매우 주목할만한 사실이다(표 제시: 일제하 대지주 명부).

서산의 주민들은 포구에서 서해 바다로 빠져 나와 해로를 통하여 서해안을 거쳐 한양으로 가는 길이 육로를 통해 상경하는 것보다 수월하였다. 따라서 이 지방 사람들은 수로를 이용하여 생선과 소금, 그리고 곡물을 서울을 비롯한 타 지방으로 내다 팔았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였다. 특히 많은 사설 연안 항로 및 구한말과 일제시기 동안의 정기 항로 개설로 인천 및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됨으로써, 수도권 의미의 소금 소비 시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소비 시장을 배경으로 중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금을 판매하고 곡물과 포(布)를 교역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은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지도 제시: 서산지방의 주요 포구와 항로).

서산지역은 한양과 충청도 유림의 본거지였던 공주를 잇는 간선도로로부터 벗어난 벽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으로 열린 이 지역의 지리적 개방성은 서해안을 따라 서울로 오는 선박들의 경유지로 중요시 되었다. 따라서 이곳은 조선후기에 이양선들의 방문이 잦았다. 그런 가운데 조선후기 천주교가 이 지역에 상륙하였다. 특히 선교사들은 주로 접근이 용이한 해안가 하천수로를 따라 선교거점을 확보했는데, 해안평야나 하천변에 우선 교두보를 확보한 후 내륙으로 선교 루트를 개척한 예가 많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산 지역은 선교를 위한 내륙으로의 교두보였을 뿐만 아니라 적대감정을 가진 원주민들의 위협으로부터 성직자와 신도들의 생명을 보호할 비상 탈주로를 확보할 수 있는 선교 대상지로 적합한 거점이었다(지도 제시: 천주교의 확산 경로).

이와 같이 서산지방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특징과 지역적 정체성은 이 지역의 독특한 지역적 조건과 결부되어 있다. 산촌이라는 촌락 경관은 지형 및 토양이라는 자연지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 가톨릭의 3대 요람으로서의 종교적 특성은 전파 및 확산에 유리했던 개방적인 지리적 조건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 또한 지리적 조건에 대한 생태적 전략으로서 어업 및 해운의 발달과 그로 인한 부의 창출을 천시하지 않았던 지역적 의식구조, 이들의 결과로 조선과 일제시기를 거쳐 대두되는 지역의 새로운 엘리트 세력 등은 서산지역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이미 1910년대부터 서산읍내에는 법원, 금융기관, 병원, 학교가 들어서고 새로운 도시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어떤 개항지 못지 않은 근대적 도시지역으로 급변하였는데 이 또한 이 지역이 가진 개방성에 기초한다. 서산지역은 오늘날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대 중국 무역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각되면서 대산공단과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오늘날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역사, 지리적으로 매우 깊은 연원을 갖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지역개발계획도 제시: 도로망 및 도시개발 계획도).

5. 맺음말

사회과의 한 영역으로서 지역학습에 관한 논의는 학생들이 실존하고 있는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는 학자들의 그것과 다를 수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은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투사하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어떤 지역은 지리적으로 고립적인 성격이 짙는데 비해서 또 다른 지역은 외부 세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보다 큰 지역의 일부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기도 한다. 사회과교육

에 있어서 적극적 의미의 지역화란 결국 이러한 다성성(多聲性)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적합화된 지역학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적극적 의미의 지역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실수업의 두 주체인 교사와 학생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이들의 주도적 활동을 통해 지역학습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학습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을 보면 현장의 교사·학생들을 위한 교재 개발의 구체적 절차나 지침을 탐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지역학습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척되어 온 초등사회

과의 경우에도 소극적 의미의 지역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교사와 학생이 주도하는 지역학습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위한 표준 지침을 제시한 다음, 그것이 각 지역에 어떻게 적합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남 산청과 충남 서산이라는 서로 다른 생태적 환경을 가진 두 지역을 선정 한 후, 6대 스트랜드의 비중 조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로부터 어떠한 주제들이 추출될 수 있는지 제시하였다. 본 고에서는 두 지역의 지역학습 주제를 각각 세 개씩 도출하였으나 이 과정은 어디까지나 지역적 적합화의 예시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즉, 본문에서 제시한 주제가 지역적으로 적합화된 불변의 주제는 아니며 학교의 위치나 여건, 교실내의 질적 상황을 고려해서 주제의 수와 내용은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재개발의 지역적 적합화와 관련한 추후의 쟁점은 다양한 지역 특성과 수업 상황을 고려하면서 교사-학생이 주도하는 지역적 적합화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다. 특히, 대도시지역의 지역학습은 본 연구 사례에서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난관과 과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도시지역의 지역학습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경관 누출의 이해를 통해 진정하고 바람직한 지역에 함양을 추구해야 한다.

‘진정한’ 지역에는 지역내 ‘타자를 인식’할 줄 알고 지역 밖의 ‘타자를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바람직한’ 지역이란 지역이기주의적 편집증과는 다르며, 보다 다중 스케일의 공간적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큰 지역의 일부로서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하고 바람직한 지역이란 지역 정체성의 다원적 인식을 통해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점은 사회과의 일부로서 지역학습의 궁극적 목적이 된다.

註

- 1) 중등사회과의 경우 지역학습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대신, ‘지역지리(지리) 교육’ 혹은 ‘지역에 관

한 학습’이 지리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며 연구되어 왔다(김일기, 1983; 권정화, 1997; 최홍규, 2001; 윤옥경, 2003). 지역학습이 사회과교육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다루어져 온 것과 달리, 지역지리 교육은 지리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지역의 인식 방법, 지역지리의 내용구성, 교수-학습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역학습’에서의 ‘지역’은 학습자의 일상생활의 장을 제도 교육의 범주로 들어오려는 의도에서 정의된 ‘신변지역’, ‘향토’, ‘주변지역’의 의미인 반면, ‘지역지리교육’에서의 ‘지역’은 지역지리학 연구의 주요 단위로서 지역성을 준거로 확정된 지역을 뜻한다. 지역학습에서도 국내의 다른 지역, 혹은 세계 각 지방을 다룰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간 스케일의 중층성을 염두에 두고 신변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학습자의 주변지역은 보다 넓은 스케일의 지리적 지역에 포함된 일부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지역지리 학습 혹은 지역의 학습에서는 신변지역에 집착하지 않으며 독특한 지역성을 가진 곳이면서 지표 공간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지역이라도 학습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양자는 공히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광의의 개념이나 협의의 개념이나 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지역학습과 지역지리 학습은 논의의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른 두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

- 2) 여기서 독도는 기능(skill) 영역에 해당하는 스트랜드로서, 여타 스트랜드와 달리 지역 정체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수라기보다는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읽어내기 위해 지역학습 전반에 사용되는 특성을 갖는다.

文獻

- 권정화, 1997, 지역인식논리와 지역지리 교육의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권혁풍, 1995, 지역화 논리에 따른 한국 사회과교육 과정의 분석,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 김영석, 1994, 주변학습을 통한 세계학습의 가능성 탐색, 사회과교육, 27, 96-105.
- 김용만, 1986, 사회과교육과정 지역화의 이론적 배경과 접근법, 사회과교육, 19, 9-19.
- 김일기, 1983, 지리교육의 제문제, 지리학의 과제와 접근방법(석천 이찬박사 화갑기념논문집), 595-613.
- 김진영 외, 2001, 통합사회 교과교육학의 교재개발 연구, 한국교원대 교과교육공동연구소 교육개혁 및 교육정책 추진 과제(2001. 7), 707-877.
- 남상준, 1996, 지역교과서의 비판적 검토, 충북사회과교육, 2.
- 남호엽·김일기, 2001, 지역학습에 있어서 민족정체

사회과 지역학습 교재개발의 지역적 적합화 연구

- 성과 지역정체성의 관계: 제주도 지역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6(4), 483-494.
- 박승규·심광택, 1999, '경관'과 '기호' 표상을 활용한 지역학습, 대한지리학회지, 34(1), 85-98.
- 서재천, 1987, 국민학교 지역사회학습의 의의와 유형에 관한 고찰, 사회과교육, 20, 178-192.
- 손일·전중환, 2003, 사회과 지역학습의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 스트랜드 중심의 내용요소 선정과 조직 방안-,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1(1), 81-92.
- 윤옥경, 2003, 지역에 대한 학습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 -아산만 지역을 사례로-,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전중환, 2002a, 사회과에서 지역학습 내용구성의 실제에 관한 연구 -연산지방을 사례로 한 scope와 sequence-, 대한지리학회지, 37(2), 177-190.
- 전중환, 2002b, 지역학습 내용구성의 대안적 논리 구상, 사회과교육연구, 9(2), 223-244.
- 조성욱, 2002, 지리교육에서 주변지역학습의 교육적 의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2), 25-39.
- 최홍규, 2001, 지역지리 내용구성과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 황홍섭, 1995, 지역지리학습에 있어서 음악작품의 활용,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창간호, 103-116.
- Joint Committee on Geographic Education, 1984, *Guideline for Geographic Education*, NCGE & AAG.
-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1997, *Curriculum Standards for Social Studies*, Washington D.C: NCSS.

(접수 : 2004. 4. 1, 채택 : 2004. 4. 28)